

이슬람권 라마단 시작... 한 달간 해 떠 있을 땐 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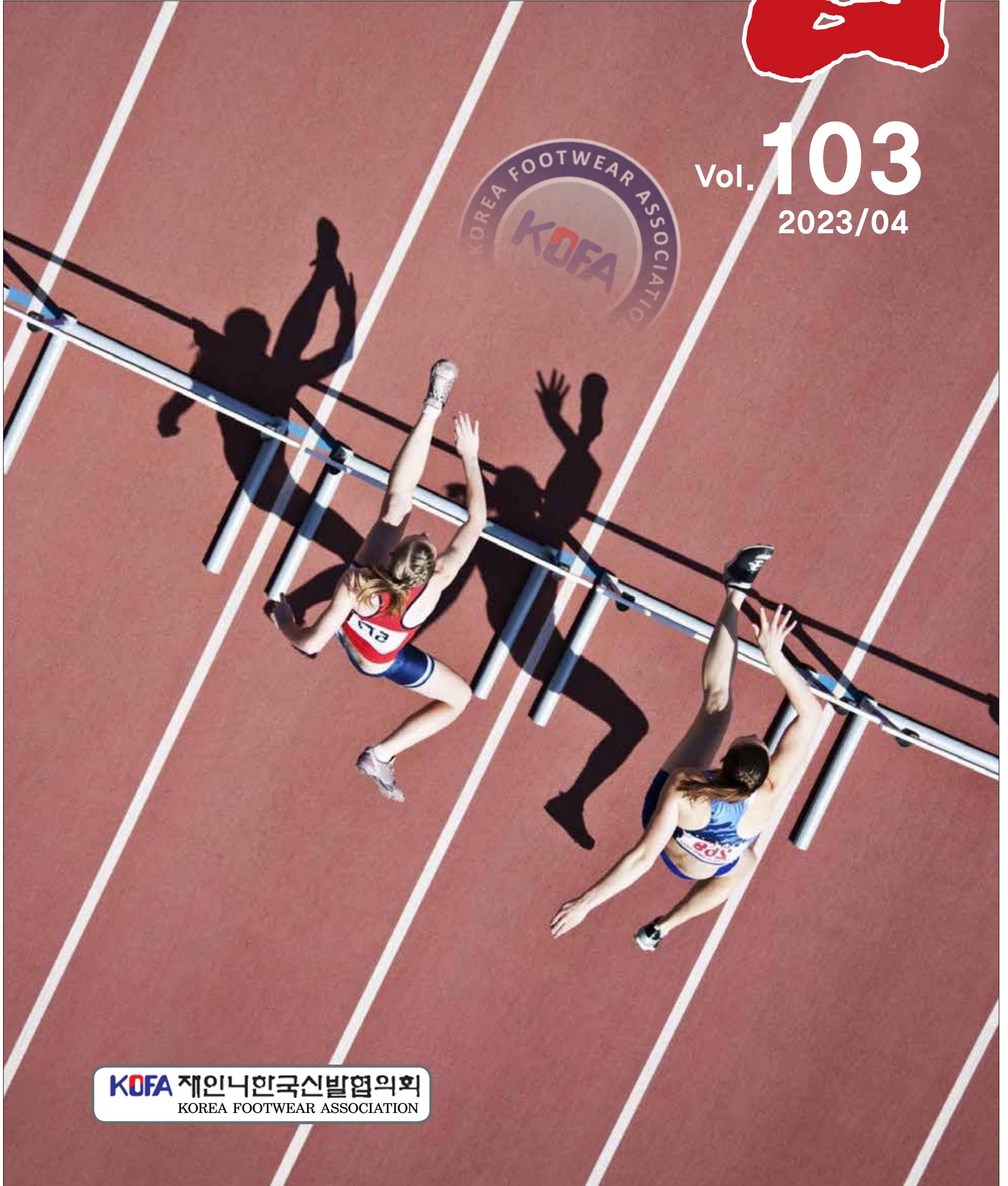
MONTHLY KOFA

코파의

잡지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103**
2023/04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세일즈맨 윤’의 다음 선택은 인도네시아?

윤석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늘리는 ‘세일즈맨’을 자처한다. 유능한 세일즈맨과 기업가는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일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한 건 부정적 국민정서와 야당 공세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높이는 기회로 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성공할 경우 한국 경제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대외교역에서 중국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변수 때문에 수출을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울 들어 비상등이 켜졌다. 2022년 3월부터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가 1년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억2,000만 달러 적자다. 울 들어 무역적자가 벌써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켜온 버팀목인 수출의 감소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는 위기가 온다. 지금은 IMF 이후 최대 위기이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면서 글로벌 위기지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경상수지도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위기의 본질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다. 지난해 한중 수교 30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무역 적자를 냈다. 윤 대통령 구상대로 중국을 넘어서는 시장접근이 필요하다. ‘비욘드 중국’ (Beyond China) 정책이다. 미국·일본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 기회를 동남아에서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베트남을 넘어 우리나라의 향후 10년의 시장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중국을 대체할 목표시장을 찾지 않고 지금처럼 수출을 많이 하라고 관련 기관을 독려하는 것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시장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신해 미래 대한민국에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국가라면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우리 기업이 1만 개 이상 진출할 만큼 시장이 충분히 커야 하고, 10년 정도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국가는 세계 인구 5위 이내여야 하는데, 인구 기준 5위는 파키스탄, 4위는 인도네시아, 3위는 미국, 2위는 중국, 1위는 인도다. 당연히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300여 개에 불과하다. 중국에 진출한 5만여 개, 베트남에 진출한 1만여 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진출 기업을 늘리지 않고 수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결과,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우리는 102억 달러를 수출하고 157억 달러를 수입했다. 지난 정권에서 신남방정책 혹은 아세안정책 등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중시정책이 있었지만 진출 기업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없었다. 이제라도 목표시장을 선명히 하고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을 1만 개 이상으로 늘려가는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중국은 인도네시아 진출에 아주 적극적이다.

유능한 세일즈맨과 기업가는 미래변화를 읽고 대비할 줄 아는 최고미래책임자(Chief Future Officer)도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주길 기대한다.

[한국일보]

인니 공무원, 라마단 기간 ‘주 32.5시간 근무’로 단축



▲자카르타 이스티프랄 대사원 [이미지: 인도네시아 관광청]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23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는 이날부터 라마단이 끝나는 4월 21일까지는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5시간 근무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6일을 근무하는 공무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는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또 근무 중간에 매일 30분, 금요일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소방서나 경찰서, 병원 등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교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에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라마단 금식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생산성과 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무 시간을 축소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 시까지 금식하며 수양과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 대신 해가 지면 가족과 지인, 어려운 이웃 등을 초청해 함께 저녁을 먹는다.

또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를 기념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리(이슬람)가 시작된다. 인도네시아는 ‘르바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1주일 이상 긴 휴가를 보내며 고향을 찾아 떠나 귀성길 대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연합뉴스]

재외동포단체 70%, 재외동포청 서울에 유치 희망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 결과, 서울을 1순위로 선택



▲2019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사진=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인회, 한상,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기명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3.20(월)부터 3.22(수)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재외동포 단체장들은 서울 70%, 인천 14%, 경기 10%, 기타 6% 순으로 해당 지역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집계가 곤란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영비즈니스티터네트워크(YBLN) 등을 제외한 지역별 조사 결과는 서울 71%, 인천 14%, 경기 10%, 기타 5%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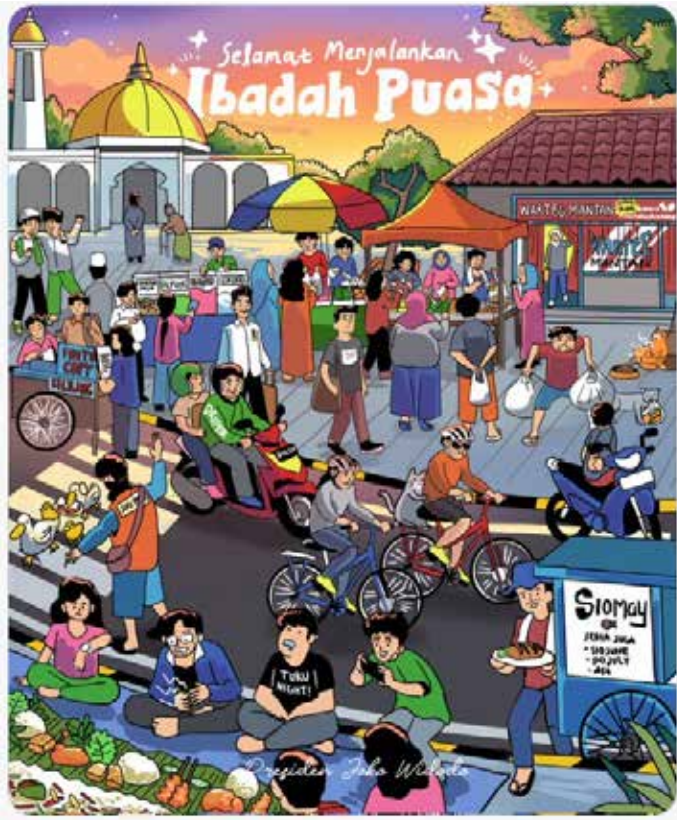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이슬람권 라마단 시작... 한 달간 해 떠 있을 땐 금식



▲이프타르 풍경을 그린 그림 [이미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 트위터]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대부분의 이슬람권에서 시작됐다. 23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전날 저녁 라마단 초승달 관측에 성공했다며 23일 일출부터 라마단 금식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등 다른 지역의 이슬람 기관들도 초승달이 관측됐으며 라마단 시작을 공식화했다. 무슬림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이다. 라마단 시작일은 때때로 나라마다 하루 정도 차이 나기도 한다. 이는 초승달이 뜨는 날을 달의 시작으로 보는 이슬람

력 때문이다. 현재는 위성 등을 통해 초승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눈으로 확인해야 하니 삭과 초승달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날씨 등의 영향으로 초승달을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라마단은 국가마다 권위 있는 종교 기관이 초승달을 직접 관측한 뒤 라마단의 시작을 공식 발표했고,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부와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 마협의회(MUI), 기상기후지질청(BMKG), 국회 종교위원회, 대법원 등이 모이는 이스밧(isbat·확인) 회의를 열고 달의 높이와 각도, 떠 있는 시간

등을 확인해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공식 라마단 시작을 선포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승달을 관측해 23일부터 라마단이 함께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은 4월 2일부터, 이란과 인도네시아 등은 4월 3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다. 라마단이 시작되면 다음 초승달이 뜰 때까지 약 30일간은 일출부터 일몰 시까지 금식한다. 해가 지면 가족과 지인, 어려운 이웃 등을 초청해 함께 저녁을 먹는다. 라마단 기간 성대한 만찬을 이프타르라고 한다.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를 기념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리기가 시작된다. AP통신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18억 명 이상의 무슬림이 라마단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올해 라마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중동 지역의 분쟁 등으로 무슬림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가운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인니 국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만든 일자리법 개정안 통과

야당·노동계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 노동권 침해” 반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개정된 일자리창출법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21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이날 일자리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반대해 온 인도네시아 민주당(PD)과 복지정의당(PKS)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며 법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 통과 후 아이들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법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도 “우리는 이 법이 고용을 늘리고 국가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법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날 개정안 통과까지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으며 노동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천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을 만들었다. 이에 노동계는 퇴직금 삭감과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 새 법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현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2년 안에 법률을 개정하라고 심판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할 위기가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 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면 긴급명령 발동 후 열리는 첫 번째 의회 회기 내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달 임시 국회를 열어 긴급명령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그러자 국회는 휴회를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표결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회가 표결을 한 달 이상 연기한 것은 법률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노동계 역시 일자리창출법 개정안도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을 약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인도네시아 노동당원 300여명은 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니, 대선 11개월 앞두고 연기설 지속 ... 선거 준비 중단 판결도

야권 대선 후보 “조코위 대통령 측근이 개헌 움직임 배경”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 70% 넘어...본인 부인에도 논란 지속



▲조코위 대통령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야권 대선 주자가 조코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이 조코위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해 3선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내년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을 만큼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몇 년 전부터 3선 개헌설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고려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때마다 조코위 대통령은 3선 출마나 선거 연기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

록 이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법원이 내년 선거를 연기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021년 출범한 신생 정당인 프리마 당은 2024년 총선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에 정당 등록을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탈락해 총선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이에 프리마 당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달 초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KPU가 프리마 당을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총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로부터 역산해 2년 4개월 7일 전부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하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 준비를 다시 시작하면 2025년에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일단 선관위는 항소한 뒤 법원의 판결에도 내년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나 조코위 대통령도 선거를 연기하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면 선거가 연기되면서 자동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배경에 현 정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로 유력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이 개헌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으며 “고위 각료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라며 민주주의 지지자라면 게임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아니스 전 주지사가 지목한 인물이 조코위 대통령의 최측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장관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루훗 장관은 이전에도 1억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선거 연기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여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미루고 있고, 조코위 대통령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대선 연기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실업자 800만명 웃돌아... 고학력자 상당수


인도네시아의 실업자 수가 800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실업자는 842만 명이다. 이들 실업자 가운데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포기한 미취업자도 포함한다. 지난 7일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약 2억8천만명 가운데 약 1억 3,530만 명이 취업자이다. 이 중 38.8%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며, 17.54%는 중학교 졸업자들이다. 즉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태반이 저학

력자이다. 이다 과우지야 노동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이하 인니상의)와의 회의에서 “중학교 이하 졸업자들이 여전히 노동력의 50%를 넘고 있다”면서, “실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압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실업자 842만 명 중 67만 명이 대학 졸업자이며, 약 166만 명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247만 명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자이다.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2022년 8월 현재 5.83%이다. 고용 인구의 약 59.31%가 가사



노동 등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인니상의 인력 담당 아디 마프드 위하지 부국장은 “학교 교육이 교과서와 이론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실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니상의는 Pel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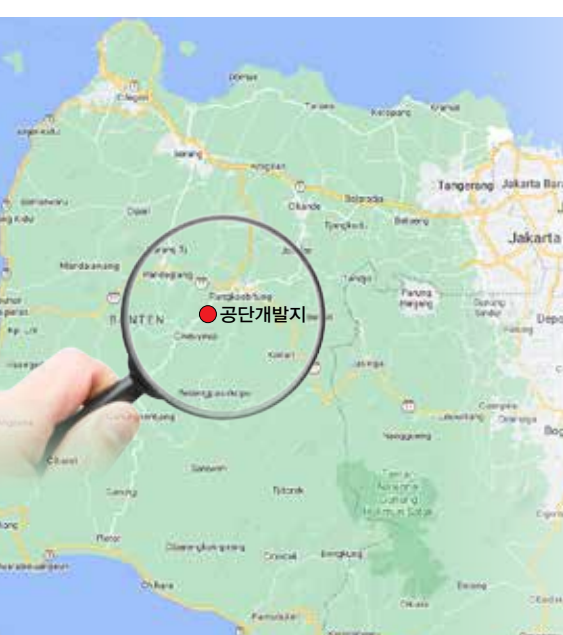
Harapan University(UPH), Podomoro University, Pembangunan Jaya University, Trisakti University 등 여러 대학과 일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munscb.co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munscb.com, munscb33@gmail.com
www.muns.id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벚꽃 경기(驚氣)

인구감소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수가 얼마나 되나 싶어 알아보니 대략 26만 명 정도다. 2012년에 48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니 1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1992년에 73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30년 만에 약 1/3로 줄어든 것이다.

‘대학 알리미’ 자료를 보면 전국의 4년제 대학 수는 사이버 대학 등을 제외하면 대략 220개다. 이중에 사립은 156개로 71%다. 학령인구를 감안하여 정원을 줄여도 총원율은 낮아지고 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경쟁률이 3: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이었다. 내년엔 더 하고 갈수록 태산이다. 1년 후인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 34만 4296명 등 총 51만 여명이다. 고3 학생보다 11만 3천 명 정도 많다. 재수생이나 만학도를 포함해도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4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란다. 진해에는 25일부터

벚꽃축제가 장관인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 하니 꽃소식에 대학가는 경기(驚氣)하지 싶다.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로가 필요하다.

대학에 갈 즈음에 또는 대학을 다니다가 남학생은 군 입대를 한다. 학생이 줄어드니 병력은 충분할까?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작년에 태어난 26만 명이 결혼적령기가 되는 2050년에는 얼마나 결혼하고 몇 명이나 낳을까?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늦었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민을 받지 않고 서야 답이 없다. 직업인 미군도 복잡한 장비와 어려운 교범을 이해할 고졸 학력자 이상을 뽑으니 필요한 병력을 채우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지금은 중지했지만 근래에 까지 미국에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유학생)들에게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주는 매브니(MAVNI)라는 제도로 모범을 해왔다. 우리도 외국인이 한국

에 입대하면 한국 시민권을 주어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에 살며 자녀를 낳으면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온갖 출산장려대책이 안 먹힌다. 외부수혈이 필요하다. 이민을 받아야 하겠다. 공장은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일을 할 근로자가 없지 않은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휴경을 해야 할 처지다. 결혼을 못하는 농어촌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외국인들을 결혼비자로 모셔오고 일정기간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우수한 외국인을 중고생부터 장학생으로 받아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취업과 결혼 비자인 셈이다. 외국인의 중·고·대학에 이런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대학이 부족한 정원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졸업 후에 한국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시진핑은 푸틴을 만나 서로 돕자면서 웃고 있다. 북·중·러가 뭉치고 있다. 중국은 무기를 팔아먹어 좋고 푸틴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팔아먹어 좋을 것이다. 서방의 제재를 견디는 방법이니 서로 간에 의지하기 딱이다.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 내려오다 지상 800미터에서 폭발한다는 핵탄두는 깡그리 전멸시키는 무기다. 선제공격에 당하면 반격도 못하고 끝이다. 북한의 적이 미국일까? 북한이 미국에 위협적일까? 북한이 어찌 미국을 공격하겠는가? 우리의 군사력과 무장은 충분할까?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저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예비군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훈련받고 소집되어 전장에도 나가는 미국의 예비군과는 다르다. 자동화와 무인화, 로봇까지 활용하고도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신이 건강하면 신체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어도 현역으로 복무시키는 것이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로 만든 특공대도 필요하지만 보장구를 이용하고 사회생활을 지장 없이 한다면 군복무를 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총을 쏘고 육박전을 하는 것만이 군복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발작



조기조

을 일으킨 것처럼 입원하여 허위 병력(病歷)을 남기고 무릎 인대를 자르고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을 잘라도 현역 복무를 시키면 된다. 70이 다 된 나도 전쟁이 나면 총을 들 생각이다. 싸우다가 죽는 것이 후회 없을 것이니.... 좁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전후방이 어디에 있나?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판에.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외부자금 24억 달러 조달 마쳐



▲롯데케미칼이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 건설사업인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24억 달러(약 3조1천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사진은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회사 롯데케미칼인도네시아(PL LOTTE Chemical Indo-

nesia)를 통해 인도네시아 반텐 주에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건설(라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부 자금 조달을 마쳤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인도네시아가 22일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대출·보증 및 보험 등의 금융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24억 달러(약 3조1천억 원)를 12년 동안 장기 차입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인도네시아는 라인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로 롯데케미칼이 49%,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어려운 대외 환경 아래에서도 안정적으로 24억 달러를 조달해 해외 생산기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인(LINE, LOTTE Indonesia New Ethylene) 프로젝트는 연간 100만 톤의 에틸렌과 52만 톤의 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 조성사업이다. 롯데케미칼은 라인 프로젝트의 2025년 기계적 준공 및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해

외사업에 진출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에게 7억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봤다. 롯데케미칼은 “국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으로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쟁력 확대와 함께 라인 프로젝트와 인접한 다른 계열사의 폴리에틸렌 생산공장과 시너지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USINESS POST]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인니, 연속 무역흑자에도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북부자카르타 만중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34개월 연속 월간 무역흑자를 달성했지만 수출과 수입은 모두 세계 경기 둔화를 반영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15일 발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월에 총 214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는데, 이는 1월보다 4.15% 감소한 것이다.

한편 수입은 13.68% 감소한 159억2천만 달러로 2월 무역수지는 54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수치 모두 작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및 새해 시즌에 수요 증가가 월간 수입 증가로 이어진 12월이 유일한 예외다. 통계청 무함마드 하비불라(Muhammad Habibullah) 부청장은 15일 2023년 2월 무역흑자는 수출 감소보다 훨씬 큰 수입 감소 속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모든 부문에서 수출이 감소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석유와 가스, 수출은 20.26%나 급감했으며, 9.62% 감소한 농림수산업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월별 수출 감소에 가장 큰 기

여를 한 품목은 광물 연료로 1월 대비 수출액이 2억7,700만 달러 감소했고 귀금속과 보석류가 2억4,420만 달러 감소한 것을 비롯해 광석, 슬래그, 회분 등이 1억7,820만 달러 감소했다.

2월 수출은 최근 6개월간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2월 수출 증가율(16.37%)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팜원유(CPO)와 석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0%와 5.60% 하락했다.

국영 만디리 은행 이코노미스트 파이살 라흐만은 15일,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상품, 특히 석탄과 팜원유(CPO)의 국제 가격 하락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 2022년 2월 초에 수출 금지를 해제하면서 작년 석탄 수출 금지로 인한 거저 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살은 “예상대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 속에서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쁘르마파 은행 수석 이코노미

스트 조수아 빠테데는 15일 “팜원유 수출 감소는 비료 가격 급등과 함께 2022년 말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급 감소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수아는 석탄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여러 국가의 수요가 변동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주요 원자재가 가격과 물량 면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아는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의류 및 가구와 같은 공산품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수출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품의 경우 ‘전기기계·

장비·부품’ 카테고리의 상품 가치가 15.2%(3억5,540만 달러) 하락했고, ‘기계·기계 기구·부품’ 카테고리가 7.27%(1억7,94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23.45%(2억1,810만 달러) 가장 큰 폭으로 월간 감소율을 보였고,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각각 2억1,040만 달러와 1억5,240만 달러 감소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월보다 24.09%(12억 달러) 감소했고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가 각각 1억890만 달러, 1억749만 달러, 94.9달러 감소했다.

미국과 인도, 중국 등에 대한 지난 2월 수출이 각각 13억 3,000만 달러, 10억8,000만 달러, 9억9,980만 달러로 수입을 웃돌면서 인도네시아 무역흑자에 특히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적자는 호주, 태국, 브라질로 각각 4억 달러, 3억4,200만 달러, 1억5,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파이살은 중국 경제의 재개와 유럽의 ‘예상보다 나은 상황’에 힘입어 원자재 가격 하락이 더 점진적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수입 실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동남아 하늘길 넓어진다... 원희룡, 아세안 사무총장과 확대 협의

후은 총장, 인니 찾은 인프라 수주지원단에 노선 다변화·증편 제안 6월엔 한-인니 항공회담...취항지 확대 논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통하는 하늘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항공편 노선은 운항 횟수를 늘리고, 지방공항을 활용한 새로운 노선 발굴에도 나선다.

인프라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자카르타의 아세안(AES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에서 까오 김 후은(Kao Kim Hour) 사무총장과 만나 항공 연결성 강화 등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후 한국 출장 기자단과 만난 후은 사무총장은 “한-아세안 간 항공 연결편이 증가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적 교류도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은 총장은 “한국 문화가 아세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아세안 6억 6천만 인구 중 특히 한국을 방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까오 김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이 17일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3.3.17.]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적극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왕래를 늘리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후은 사무총장에게 원 장관도 협력의사를 표했다.

앞서 이날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부디 까르야 수마디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원 장관은 양국의 지방공항을 포함한 항공편 노선 다변화를 논의했다.

지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인천-자카르타, 인천-덴빠사르(발

리) 노선만 운영되고 있다. 양국은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운항 횟수(주 23회)를 늘리기 위해 오는 6월 한-인도네시아 항공회담을 연다.

원 장관과 후은 총장의 면담 자리에선 국토부가 연구용역 중인 ‘아세안 스마트교통 마스터플랜’도 논의됐다.



완성된 마스터플랜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세안 교통장관 회의 때 의제로 올라간다. 채택되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아세안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스마트교통 관련) 금융 지원이나 공동 연구 등 아세안과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우리 기업과 정부 기관들에도 도움이 되기에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후은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인트리 재봉사

친환경 수성분도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1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소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소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g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anah)

제조에서 창조로 진격하는 쑤이현 신발 제조 로봇 생산 라인

전 세계 신발 세 켈레 중 두 켈레는 중국산이고, 전국 스니커즈 열 켈레 중 세 켈레는 쑤이현에서 만든다.

혁명 지역에서 “중원 신발 도시”에 이르기까지 쑤이현 신발 산업의 부상은 오래된 실크 직조 역사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 해안 및 숭안 신구의 신발 산업의 이동 기회와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재 쑤이현의 신발산업 생산 능력은 3억 켈레 이상, 지원 능력은 90% 이상으로 푸젠진장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케주얼 운동화 기지가 되었다. 경공업은 어떻게 고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일까? 현지에서는 브랜드의 대동, 혁신적인 주도, 품질 표준 개선의 “3대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발 산업 브랜드 인큐베이션 센터를 건설하고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 “쑤이현 제조”에서 “쑤이현 창조”로 바꾸고 있다.

오랫동안의 축적 실크 직조업은 일찍이 양읍의 주도 산업이었다. 오늘날 “중원 신발의 수도”로 알려진 쑤이현은 신발 제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쑤이현의 옛 이름은 襄邑양읍이며, 실크로드 견직물의 중요한 공급지 중 하나였다. “금”은 <설문해자文解字>에서 “뺨” 부분에 속하며, “양읍직문”에 속한다. 구《쑤저우지》에는 “양읍 사람들은 비단을 잘 짜고, 모두 연못을 따라 살아 탁금지라는 이름은 이로 인한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청두成都는 금관성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쑤이현 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왕광웅은 서한 때 당시 왕실이 양읍襄邑에 복관, 즉 금관을 설치했는데, 이는 삼국 촉한이 청두에 금관을 설치한 시대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금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늘날까지 쑤이현 북부 서북 쪽에는 한나라 탁금지의 유적이 있다. 약 2000년 전, 양읍의 선견지명이 연못에 둘러싸여 살면서 환지직금산업벨트를 형성하였고, 방직업은 양읍에서 가장 유명한 선도산업이 되었다. 양읍의 직물은 장안으로 옮겨진 뒤 “실크로드”를 따라, 낙타방울 소리를 내며 중앙아시아·유럽 각국에 팔렸다고 한다. 방직업이 발달하여 견직물이 많이 생산되었고, 양읍에서도 다양한 재질과 스타일의 옷과 신발을 많이 생산하여 황궁에서 사용하였다. 당시 천으로 된 신발의 앞부분은 대부분 갈라진 모양이었고, 밑창은 삼실로 짜여져 있어서, 양끝이 뾰족하게 들려진 네모난 신발이라 불렀다고 왕광웅이 소개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제복에는 가마, 조복에는 장화, 연회복에는 삼으로 만든 신발, 외출은 나막신을 신었다. 이전

산업 이전 기회를 포착하여 산업 전환을 실현한다. 쑤이현이 오늘날의 “중원 신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푸젠성 진장시와 밀접한 관련이



▲하남 가흥 신발 산업 생산 라인작업장 취시양친인屈向前 촬영

있다. 신발 산업에 의존하여 진장시는 낙후된 빈곤 현에서 전국 100대 현 중 10위 안에 들며 “복건성 제1현”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2012년 쑤이현은 “중원 신발 도시”의 발전 개요를 공식화하고 발표하여 “1년 기초설립, 3년 규모화, 5년 기반 마련, 10년 신발 도시”의 발전 목표를 설정했다. 쑤이현에서는 “진장경”을 활용한 혁신적인 실천이 점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쑤이현은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래된 혁명 지역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쑤이현은 “신발 한 켈레”라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동남 해안과 숭안 지역의 신발 산업 이전 기회를 잡아, 산업 사슬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신발 산업의 무에서 유로, 분산에서 집합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쑤이현 개발구에는 흥싱얼커 실업유한공사, 중차오(하남) 스포츠유한공사, 하남 터부特步 스포츠용품 유한공사, 쑤이현족력足力 건신 유한공사, 하남 자흥 신발유한공사 등 신발, 신발재 및 공업무역업체 596개가 입주해 있다. 쑤이현 신발 산업의 생산력은 3억 켈레 이상에 달하고, 지원 능력은 90% 이상에 달한다. 초기에산업 발전의 규모를 갖추어, 뚜렷한 고용 흡수 효과가 있는 등, 응집 효과가 빨리 나타났으며, 푸젠성(복건성) 진장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운동화 기지가 되었다.

기자는 중국의 신발 산업이 높은 수준의 투자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 자원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비교적 완전한 상하 산업의 체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신발 제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했음을 알게 되었다. 남동부 신발 제조 지역은 주로 광둥성, 저장성, 푸젠성이며, 연간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청두와 충칭으로 대표되는 서부 신발 제조 지역은 점차 발전하고 성장했다. 허베이성 쑤이현으로 대표되는 중부 신발 생산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치아오스스포츠유한공사는 2021년 8월 중교스포츠유한공사가 투자해 설립한 국내 유명 스포츠 브랜드 민영기업으로 Qiaodan, Qiaodan Kids, Qiaodan zhicao, Umbro 4대 브

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3일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 작업자들은 재단, 프린트, 도면, 성형 등 각 라인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중치아오 스포츠 유한공사 저우인팡 대표는 “올해 1월 7일 정식 출근하여 9월까지 주문이 되어 있어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장의 신발 스마트 생산라인에서 로봇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형대로 운동화를 만들고 있다. 저우인팡은 신발 스마트 라인의 전체 설계 생산 능력은 시간당 180켈레이며 30명의 노동력을 절약하고 30%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며 접착제 및 기타 소모품 사용을 4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제조는 쑤이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쑤이현 숭안雄安 신발 산업 단지는 건축 면적이 약 20,000제곱미터인 5G 스마트 제조 산업 기지와 스마트 제조 R&D 센터를 설립했다. 5G

스마트 공장, 신발 제조 로봇 생산 라인, 5G 스마트 제조 R&D 연구실 등은 기존 제조업이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가흥신발업이 허난 가흥신발공업유한공사 건강신발공정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중국 가죽과 신발공업 연구원, 쓰촨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허난성 신발제품 품질감독검사센터를 건설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과학연구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연구, 성과 전환, 인재 영입 양성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하이테크 기업 증진 계획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이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지원하며 허난 자흥 신발 산업 유한공사 등 다수의 “특정적인 스페셜 & 뉴” 기업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계획 신발 산업 브랜드 인큐베이션 센터를 건설한다.

올해 1월 20일 허난성 인민 정부는 <쑤이현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건설에 관한 승인>(예정문[2023]13호)을 발표하여, 쑤이현 선진제조업개발구에 의거, 성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쑤이현 하이테크산업개발구로 명칭을 정하고 현행 성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정책을 시행했다.

쑤이현 하이테크 개발구가 의류 방직 (신발 제조), 전자 정보 등 선도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

전시시키고, 과학기술혁신에 따라 산업의 고급화 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서킷을 개척, 발전시키고 새로운 운동 에너지와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여, 혁신주도발전의 시범지구와 고품질 발전의 선행 구역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의견>에 따르면, 성급 하이테크 개발구의 연구 개발 경비는 지역 총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하며, 만인의 발명 특허 보유량은 20건 이상, 하이테크 기업은 성 전체 하이테크 기업 수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쑤이현은 국내 신발 산업에서 강호의 지위를 획득했다. 중국이 매년 생산하는 신발은 세계 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 신발 세 켈레 중 두 켈레는 중국산이다. 그 중 레저 운동화의 쑤이현의 연간 생산량이 전국의 30%를 차지하여, 향상될 여지가 매우 크다.

쑤이현은 혁신을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 현대화 건설의 핵심 위치에 놓고 브랜드 주도, 혁신 구동, 품질 표준 향상의 “3대 전략”을 실시하여, 신발 산업 브랜드 인큐베이션 센터를 건설,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며 이미 족리견足力健, ERKE, Qiaodan 등으로 대표되는 신발 산업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쑤이현 제조”에서 “쑤이현 창조”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Tel : 021.5980.222 / 5982.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Fax : 021.598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인니, 수출업체 달려 잡자... 중앙은행 주도 고금리 예금상품 내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수출업체들의 달려 결제 대금을 국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 고금리 달러 예금 상품을 만들었다. 외환보유고를 늘려 안정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서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BI는 이달 초부터 20개 은행을 통해 수출업체 전용 고금리 달러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수출 업체가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결제 대금을 1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 연 4.58~4.99%의 이자를 제공한다. 금액이 많고 예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1천만 달러 넘게 6개월 이상 예치하면 최고 금리인 연 4.99%를 적용받을 수 있다. BI는 4개 주요 외국 은행의 예금 상품을 벤치마크로 삼고, 3개월마다 이를 평가해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신 이렇게 들어온 돈은 은행을 거쳐 BI로 들어가 외환보유고로 계산된다. BI는 지금은 20개 은행을 통해서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생각이다. BI가 이처럼 고금리 상품을 내놓은 것은 외환보유고를 늘려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달까지 3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말 1천449억 달러였던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지난달 말 기준 1천403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수출 호황에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쌓여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2019

년부터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는 외화로 결제 대금을 받을 때 국내 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수출업체들은 국내 계좌로 결제 대금을 받은 뒤 바로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수출 업체들이 3개월 이상은 국내에 의무 예치하거나 결제 대금을 루피아로 의무 환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에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대신 BI 주도로 외국 은행들에 맞설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을 만들어 우선 대응하고 있다. 이 전략은 시행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평가가 나온다. BI에 따르면 이 상품이 출시된 지 약 보름 만에 1억7천3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투자회사 ABM 인베스타마의 망기 하비르 위원은 “BI를 통해 일단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라며 “규제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접근이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수출업체에 신뢰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리 경찰, 외국인 특별 단속 실시

발리 경찰은 지난 3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발리 섬 전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단속하는 특별 작전인 '아궁 작전' (Agung operation)을 실시한다고 1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발리 경찰청의 뿌뚜 야얀 다누 뿌트라 청장은 아궁작전에 경찰관 475명 이상이 투입되고 이민국, 관광청, 세무서, 교통국, 노동청, 공공질서요원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발리에서 외국인이 위법행위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발리 경찰과 참여 기관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관련된 단속을 펼친다. 첫 번째 그룹은 차량 서류 확인, 헬멧 착용, 운전질서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두 번째 그룹은 불법 취업 외국인과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기업과 상점, 체류 허가 확인 등 행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 그룹은 마약, 무기 소지 및 기타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최근 발리에서 불법 취업, 비자 만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

품행이 나쁜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얀 다누 청장은 아궁 작전이 힌두 명절인 네피와 이슬람 단식월인 라마단을 앞두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 법규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 대상 외국인 명단이 있다고 말했으나,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명단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야얀 다누 청장은 지난 2주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이 406명 이상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리 관광청 바구스 빠마운 청장은 경찰의 작전을 지원하고, 발리에서 외국인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교육 캠페인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발리에서 비자 만료, 불법 취업, 형기 만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방된 외국인은 최소 45명이다. 법률 및 인권부 발리 사무소의 앙기앗 나빠똘뿔루 소장은 발리에서 추방된 외국인의 대부분이 도착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14년 새 매출 30배 ‘깡충’ ... 뉴발란스, 아디다스 잡고 2위 굳힐까

2000년대 푸마를 국내 인기 스포츠 브랜드로 키워낸 이랜드월드는 2008년 푸마의 직진출로 위기를 맞았다. 이때 신용평가 기관들은 “푸마가 이랜드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감안할 때 사업상 큰 변화 요인”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2008년 이랜드월드가 미국 본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판매한 뉴발란스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뉴발란스는 아디다스가 국내외에서 매출이 저조한 틈을 타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며 나이

키에 이은 2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1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패션사업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1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160% 급증한 2700억원을 기록했다. 이랜드월드의 실적 성장을 견인한 건 뉴발란스다.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푸마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대안으로 들여온 뉴발란스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의 전체 실적

을 끌어올린 것. 이랜드월드가 2008년 뉴발란스를 처음 들여왔을때만 해도 매출은 25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70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진출 14년 만에 매출이 3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뉴발란스가 국내 스니커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랜드 측이 국내 시장에 맞는 감각있는 제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화도 패션이다’를 앞세우며 기능보다는 패션에 주력한 마케팅 전략이 적중했다. 이랜



드는 10~20대에 영향력이 큰 패션 리더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선정해 제품 인지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키니 스타일에 가장 어울리는 신발이라는 입 소문이 젊은 층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매출로 이어졌다. 일례로 뉴발란스는 2009년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574 밸런타인 모델’을 선보였다. 연인의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 색상의 운동화로 뉴발란스의 ‘N’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색상의 모델이었는데, 가수 이효리가 착용하면서 ‘효리 운동화’로 주목 받았다. 지금은 국내에서 누적 450만족 이상 판매되면서 뉴발란스의 대표하는 국민 신발로 자리매김했다.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인기를 끈 530 시리즈는 2010년 처음 출시 후 10년만에 재출시된 모델이다. 이랜드가 지난 20여년간의 신발 트렌드를 분석해 어글리슈즈를 이끌 트

렌드로 레트로를 제시, 글로벌 본사에 역제안한 결과였다. 뉴발란스 키즈도 아동 의류 업계에선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3년 전세계에서 최초로 뉴발란스 키즈 단독 매장을 열었고 2020년에는 중국 내 뉴발란스키즈 유통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패션업계에선 뉴발란스가 조만간 아디다스의 연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나이키를 따라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로의 사업 재편에 나선 아디다스가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 부진한 사이 뉴발란스가 상품 기획력을 무기로 맹추격한 결과다. 아디다스의 한국 매출은 미공개이나 연 7300억~7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발란스가 지난해 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근접하게 따라잡았다. 업계 1위는 나이키로 지난해 매출액은 1조6749억원을 기록했다.

[머니투데이]

아디다스, 2023년에도 만만치 않은 한 해 전망해

아디다스의 예비 마감사 2022년 결과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이 66% 감소해 약 7억1,53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영업 마진도 2021년 9.4%에서 3.0% 감소했다. 계속 사업으로 인한 순수익도 83% 하락해 약 2억7,1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매상 총이익은 340배 이시스 포인트 하락해 50.7%에서 47.3%로 감소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FY22 총 수입금액은 6% 증가해 241억 달러로 추산된다. “수치가 말해준다. 현재 당사는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디다스 비운



쿨덴(Bjorn Gulden) CEO는 말했다. “2023년은 다시 수익성 높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하는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지(Yeezy) 재고 활용 방안 등 FY23에 병목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디다스가 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익은 약 12억 유로로, 영업 이익은 약 5억 유로 하

락할 것이다. 이 같은 매개변수에 대하여, 회사측은 FY23 화폐 중립 매출에서 높은 수익 한 자릿수 하락과 “순익분기점” 영업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아디다스는 2024년 “수익성 있는 성장 재점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이지 상품 목표를 반대한다면 FY23 영업 이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추가적으로 5억 유로까지 회사 영업 이익을 낮출 수 있으며 일회성 예상 비용 2억 유로와 결합하면 올해 약 7억 유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p>NEXTIN LED LIGHTING ELECTRIC MATER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ufacturing Assy Cikarang Trading / Import Korea & China Small Qty Can Be Accepted 	<p>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Lt.4 Jl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p : +6221-3104414</p> <p>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 Contact Person 0815-1902-4272</p>	<p>DHT PT. DAEHWA T&D INTERNATIONAL MRO GLODOK 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livery Onsite From Glodok 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
<p>LED Highbay 100W/150W</p> <p>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p>		<p>PACKING ITEMS : Silicagel, Wrapping, PE Bag, Opp Tape, Strapping Band</p>
<p>LED Tube T8 18W / 24W</p> <p>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p>		<p>STEEL ITEMS : Alumunium profile, Belt, Reparation Parts</p>
<p>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p>		<p>TOLLS & CONCUMABLE ITEMS : Hand Tools, WD 40</p>
<p>ELECTRIC ITEMS</p>		<p>SAFETY/HSE ITEMS</p>
		<p>FACTORY EQUIPMENT AND SPARE PARTS</p>

푸마에서 스포츠와 스트리트 컬처에 깊이 뿌리내린 명작 슈즈 ‘푸마 스웨이드’와 ‘슬립스트림’의 신작 등장



푸마 재팬은 ‘PUMA(푸마)’에서 명작 슈즈 ‘PUMA SUEDE(스웨이드)’와 ‘SLIPSTREAM(슬립스트림)’의 신작을 발매했다. 이번에 발매하는 모델에 맞춰

푸마 스웨이드와 슬립스트림의 과거 아카이브 모델, 발매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현대의 스트리트계 선수들로 이어지는 모습을 담은 ‘FOR ALL TIME’ 캠페인 무비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특집으로 다룬 모델은 1968년에 트레이닝 슈즈로 탄생해 5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푸마 스웨이드의 뉴 모델 ‘SUEDE

VTG TEAMS(스웨이드 빈티지 팀즈)’와 1987년에 농구 슈즈로 설계되어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는 슬립스트림의 뉴 모델 ‘SLIPSTREAM LO ANIMAL(슬립스트림 로 애니멀)’, 현재 발매 중인 ‘SLIPSTREAM LO RETRO(슬립스트림 로 레트로)’와 ‘SUEDE VTG(스웨이드 빈티지)’의 4가지 모델이다. 당시 모델은 프로 농구 선수를 비롯해 1980~1999년대에는 대부분의 힙합 가수, 프로 스케이터 등이 착용해 스트리트 컬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이 캠페인 무비에서는 두 모델이 발매된 시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아카이브 이미지로 스트리트를 활동의 장으로 삼는 현대의 애슬리트들의 발을 서포트하는 모습 등 슈즈의 매력

만이 아니라 역사와 과거의 스타일링까지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매한 푸마 스웨이드의 신작인 스웨이드 빈티지 팀즈는 어퍼에 풀 프리미엄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슈즈의 바깥쪽과 안쪽의 대조적인 컬러 블로킹은 1980~1990년대의 미국 프로 농구팀의 팀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당시 팀의 라이벌 관계를 표현했다. 가격은 1만 2100엔(소비세 포함). 슬립스트림의 신작인 슬립스트림 로 애니멀은 일본에서만 개발된 리미티드 모델이다. 블랙의 레저 트림과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한 레오파드 패턴의 페이크 퍼로 리얼한 질감을 표현했다. 가격은 1만 3200엔(소비세 포함). 출처: shoespost.jp 스웨이드 빈티지 팀즈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보아테크놀로지 · 네파, 다목적 트레일러닝화 벨로스터 출시



896년과 벨로스터_남녀공용 제품 세계 1위의 핏 솔루션 기업 '보아 테크놀로지(BOA Technology, 이상 보아)'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합작하여 가벼운 둘레길 트레킹과 짧은 거리의 트레일러닝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트레일러닝화 '벨로스터'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벨로스터'는 보아가 개발한 최신 퍼폼핏 랩(PerformFit™ Wrap) 구조를 적용한 모델로, 미드솔에 이어진 3개의 스트랩이 신

발 아래쪽의 미드솔과 발이 하나가 되게끔 밀착시켜 보행시와 착지시 최상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보아의 핏 테크놀로지(Fit Technology)가 압점을 고르게 분포시켜 발등 및 발 전체의 피로를 감소시켜 회복을 돕는다. 측면의 보아 다이얼은 미세조정이 가능해 사용자의 발 모양과 붓기 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고, 쉽고, 정교한 피팅이 가능하다. 네파 벨로스터_남성용제품 또

한 이 제품은 발등을 감싸는 갑피 전반에 신축성이 우수한 스판소재를 사용하여 발 볼이 넓은 사용자도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 초경량 EVA 소재보다 30% 가볍고, 쿠션 성능이 우수한 비브람 XS TREK EVO를 적용하여, 도심공원과 근교산을 잇는 가벼운 트레킹부터 5~10km 가량 짧은 거리의 트레일러닝까지 가능하여 다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보아 관계자는 "보아가 직접 개발한 최신 기술인 퍼폼핏을 한국 브랜드 제품에 적용해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퍼폼핏은 발의 안정성 뿐 아니라, 사용자의 운동 효율 극대화와 운동 후 회복을 돕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스포츠화 제품들에 계속해서 접목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네파 '벨로스터'는 남녀공용과 남성용 제품의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다.

[2023-03-17 세계일보]

뉴발란스, 메인 주에 공장 증축 계획 밝혀... 연간 100만켤레 러닝화 생산 역량 기대



뉴발란스의 존 캠벨(John Campbell) 기업 서비스 부회장은 이번 공장 확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는 이 곳에서 116년 연혁 중 40년 이상을 보냈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은 제조 프로젝트에 착수한 적이 없다"고 캠벨 부회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뉴발란스가 제조 부문에 이번만큼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2024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일부는 당해 여름에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발란스는 40년 이상 스코히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 초, 매사추세츠 주 메수엔에 8만 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을 열고 연간 75만 켈레의 스니커즈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뉴발란스는 스코히건과 메수엔 외에도 메인 주와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 걸쳐 5곳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 약 1,00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미국어패럴및풋웨어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는 4월 25일 뉴욕시에서 개최하는 2023년 아메리칸 이미지 어워드(American Image Awards)에서 뉴발란스에 올해의 회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례 이벤트는 의류 및 풋웨어 산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업체 리더와 기업을 기리는 행사다.

프로스펙스, 브랜드 40년 담아낸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책 발간



프로스펙스가 40여년의 브랜드 헤리티지와 미래의 매니페스토를 담아낸 책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사진=프로스펙스)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40여년의 브랜드 헤리티지와 미래의 매니페스토를 담아낸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1981년 첫 매장을 연 프로스펙스는 스포츠 문화 산업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했다. 1980~1990년대 국내 대표 스포츠는 물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공식 후원할 정도로 독보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

김했으며, 2010년대 초부터는 건기를 위한 운동화 개발에 주력해 워킹화 시장을 개척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책에는 40년의 역사와 향후 프로스펙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담았다. 글과 이미지로 풀어낸 텍스트북, 이미지북 총 2권으로 구성됐다. 텍스트북은 스포츠, 패션, 디자인,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좌담회를 소개하며 프로스펙스의 현황에 대한 리뷰와 40년의 브랜드 역사와 함께한 주역들과 현재 구성원의 인터뷰 등이 담겨져 있다. 이미지북은 프로스펙스의 사진 아

카이브 자료를 수록한다. 여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사진 자료는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프로스펙스가 지켜온 스포츠에 대한 믿음과 가치는 변하지 않았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4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기에 가능한 일들을 해오며 쌓아온 역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프로스펙스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기록에 대한 선언이 될 책"이라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PRODUCTS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FT-10616
코딩 자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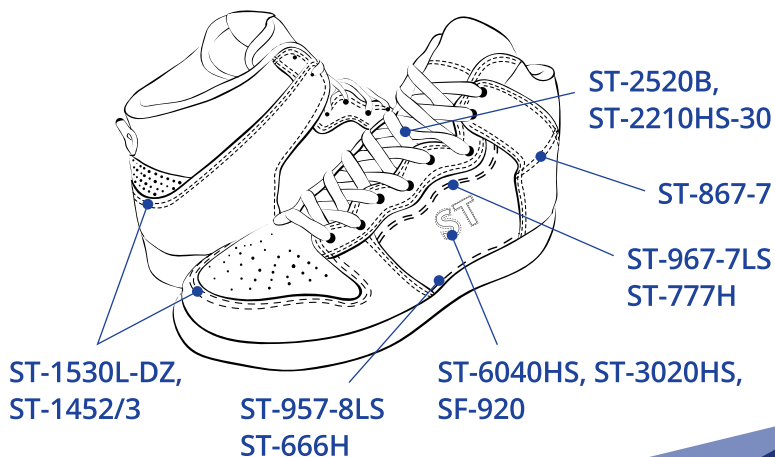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아리안스 재봉기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 006 RW. 001,
Pecangaan Jepara
TEL 0291-752-0288 FAX 0291-752-0588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